

페가수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에 설욕...4강 진출

〈제5회 대회 준우승〉

〈제5회 대회 우승〉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기 3라운드

◇24일 경기(무등중 야구장)

▲1경기(5회 콜드승)

베프스 5 3 2 0 0 - 10

카이로스 0 1 0 0 1 - 2

△승리투수 : 김남국 △홀런 : 김남국(1회 3점·2회 2점·베프스)

▲2경기

8312friends 2 0 0 1 0 2 0 - 5

태금특장썩쓰리 4 0 1 0 1 1 X - 7

△승리투수 : 김기정 △홀런 : 이현(4회 1점·6회 2점·8312friends)

▲3경기(4회 콜드승)

전대OB 0 0 5 3 - 8

케네디스코어 7 0 7 4 - 18

△승리투수 : 한득규 △홀런 : 윤요한(3회 2점·전대 OB)

◇25일 경기

▲1경기(6회 시간제한승)

에슬레틱스 0 0 4 0 0 4 - 8

정진산업스카이어야구단 0 0 0 0 6 0 - 6

△승리투수 : 신경수

▲2경기(6회 시간제한승)

W웨딩컨벤션 5 0 2 0 2 2 - 11

에프나인하이트참이슬 0 3 0 2 0 1 - 6

△승리투수 : 김경호

▲3경기(4회 콜드승)

어벤저스 0 0 1 2 - 3

레드위리어스 0 14 11 X - 25

△승리투수 : 김병희

▲4경기(4회 콜드승)

페가수스 1 0 5 5 - 11

무등산생태요양병원 0 0 0 1 - 1

△승리투수 : 김동후 △홀런 : 김영학(4회 3점·4회 페가수스)

▲5경기

패밀리 2 0 1 2 0 - 5

자연환경 2 3 2 2 6 - 15

△승리투수 : 고현무 △홀런 : 이영준(1회 2점·패밀리), 정상현(5회 4점·끝내기 만루홀런·자연환경)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광일리그 8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다.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3라운드 경기가 24·25일 이틀에 걸쳐 각각 무등중야구장과 광주일고야구장에서 진행됐다. 광일리그 8강 티켓의 주인공이 모두 가려졌고, 무등리그 준결승에 맞붙을 두 팀도 확정됐다.

베프스는 카이로스를 10-2로 꺾고 무등리그 8강행을 확정했다. 김남국이 주인공이었다. 1회 스리런을 기록한 김남국은 2회에도 투런포를 날리며 공격의 전면에 섰다. 김남국은 베프스의 마운드까지 지키면서 승리투수 타이틀도 가져갔다.

태금특장썩쓰리는 1회 4점을 만들며 기선 제압에 나선 뒤 8312friends를 7-5로 제압했다. 8312friends의 이현은 4회 솔로포에 이어 6회 투런포를 터트렸지만 팀의

패배는 막지 못했다.

케네디스코어는 전대 OB를 18-8, 4회 콜드승으로 꺾었다. 1회부터 7점을 뽑아낸 케네디 스코어는 4회에도 7명의 주자가 홈을 밟는데 성공했다. 전대 OB는 윤요한의 투런포 등을 앞세워 3회 5점을 만들어냈지만 추격에는 역부족이었다.

에슬레틱스는 정진산업스카이어야구단과의 승부에서 8-6, 6회 시간제한승을 거뒀다. 0-0으로 맞선 3회 4점을 만든 에슬레틱스는 4회말 수비에서 4-6 역전을 허용



25일 광주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등학교 야구장에서 열린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 야구대회 광일리그 토너먼트 W웨딩컨벤션과 F9하이트 참이슬의 16강전에서 F9하이트 참이슬의 1회말 2사 조정훈 타석 때 1루 주자 진성수가 도루를 시도,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경기는 W웨딩컨벤션이 11-6으로 승리를 거뒀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했지만 6회 8-6 재역전에 성공하며 8강에 합류했다.

W웨딩컨벤션과 레드위드위리스도 광일리그 8강 티켓을 챙겼다. W웨딩컨벤션은 1회부터 5점을 뽑아내는 등 공세를 펼치며 에프나인하이트참이슬을 11-6으로 꺾고 8강행에 올랐다.

레드위리워스의 화력도 막강했다. 1회를 득점 없이 넘긴 레드위리워스가 2회 대

거 14득점에 성공한 뒤 3회에도 11점을 보태며 25-3, 4회 콜드승을 거뒀다.

남은 8강 두 자리는 앞선 2라운드에서 블랙이글스와 카멋진남V-COOL이 차지했다.

이어진 무등리그 8강 두 경기에서는 페가수스와 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단이 승자가 됐다.

1회 선취점을 만든 페가수스는 김영학

의 스리런을 더해 11득점에 성공하며 4회 뒤늦게 공격에 들어간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을 11-1, 4회 콜드승으로 누르고 4강행을 확정했다.

자연환경은 끝내기 만루홀런으로 콜드승을 완성했다. 1회 패밀리 이영준에게 투런포를 허용한 자연환경이 이어진 1회말 2-2 동점에 성공했다. 매 이닝 점수를 뽑아낸 자연환경은 9-5로 앞선 6회 2점을 더

한 뒤 정상현의 만루홀런으로 15-5, 콜드승을 연출했다.

한편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KIA 타이거즈가 후원한다.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도 함께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갈 길 바쁜 호랑이 뼈아픈 실책



KIA, kt에 7-8 석패...4위 LG와 2게임차 벌어져

허술한 수비에 '호랑이 군단'의 4강 확률이 새어나갔다.

KIA가 25일 위즈파크에서 열린 kt와의 원정경기에서 7-8 석패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NC원정에서도 이범호의 만루포에도 두 개의 실책으로 승리를 넘겨줬던 KIA는 이날도 뼈아픈 실책 두 개로 승기를 내줬다. 이날 패배로 4위 LG와는 두 경기차로 벌어졌다.

0-1로 뒤진 2회말 연달아 실책이 나왔다. 지크가 선두타자 오정복에게 우전안타를 맞으면서 무사 1루, 3루수 이범호가

심우준의 안타성 타구를 낚아채 1루로 송구했지만 공이 뒤로 빠졌다. 이범호의 실책으로 기록됐지만 1루수 필의 포구가 아쉬웠던 장면이었다. 지크가 삼진으로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았지만 9번 김연훈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0-2가 됐다. 발 빠른 이대형은 2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급한 불을 끄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2루수 김주형이 박용근의 평범한 땅볼을 놓치면서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았다.

실수에 김이 샌 경기는 타석의 성급한 승부까지 더해 답답하게 흘러갔다.

이범호의 볼넷과 필의 2루타로 만든 4회 2사 2-3루의 기회를 날린 KIA가 0-6로 뒤진 6회 무사 만루를 만들었다. 윤정우와 서동욱이 연달아 볼넷을 골라내면

서 kt 선발 정대현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김주찬이 바뀐 투수 고영표를 상대로 1타점 적시타를 때렸다. 이어 이범호의 볼넷이 나오면서 무사 만루가 됐지만 kt의 세 번째 투수 배우열과의 승부에서 필의 방망이가 초구에 움직였다. 공은 3루수 앞으로 향하면서 병살타가 됐고 무사 만루가 순식간에 2사 3루가 됐다. KIA는 김주형과 김호령의 연속 안타로 분위기를 이었지만 대타 이종구가 허무하게 헛스윙 삼진을 당하면서 3득점에서 만족해야 했다.

실상가상 6회말 2사 1루에서 김윤동에 이어 투입된 고효준과 김진우가 각각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점수는 3-8로 벌어졌다.

역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7회 2

사에서 서동욱의 볼넷, 김주찬의 중전안타 그리고 이범호의 볼넷으로 KIA가 만루를 채웠다. 필의 2타점 적시타에 이어 김주형의 볼넷으로 만루 기회가 계속됐지만 이번에는 김호령의 방망이가 헛돌았다.

9회에는 막내가 승부를 뒤집기 위해 애를 썼지만 형님들의 결정력이 부족했다.

1사에서 2루타로 출루한 김주찬이 이범호의 안타로 홈을 밟으면서 6-8, 필이 초구에 3루수 앞 땅볼을 치면서 식어버린 분위기, 김기태 감독이 신인 최원준을 대타카드로 내세웠고 작전은 성공했다. 최원준의 중전안타가 터졌고 2루에 있던 이범호가 포수 실책으로 홈을 밟았다. 공이 빠지자 2루까지 내달린 최원준은 상대 배터리가 방심한 사이 과감하게 3루까지 홈쳤다. 폭투 하나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타석의 윤완주가 응답하지 못했다. 3루수 땅볼로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채워지면서 KIA는 7-8, 2연 패에 빠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대 여자농구 시즌 4관왕 ‘천하통일’

광주대 여자농구부가 올 시즌 대학농구 전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위업을 일궈냈다.

25일 광주대에 따르면 여자농구부는 지난 24일 열린 수원대와의 '2016 남녀대학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승리해 이끌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광주대는 이날 강유림(25득점 17리바운드), 우수진(12득점 8리바운드), 장지은(14득점 4리바운드), 김진희(11득점 3리바운드), 홍채린(3득점 17리바운드)의 고른 활약으로 수원대를 67-55로 눌렀다.

광주대는 4쿼터 종료때까지 단 한 차례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압도적 경기력을 선보이며 여대부 최강자임일 재확인했다.

강유림은 챔피언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광주대는 이로써 올 시즌 열린 제 32회 MBC배, 제 71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남녀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에 이어 챔피언 결정전까지 4개 대회를 모두 석관하며 명실상부한 '여대부 천하통일'을 이뤄냈다.

'시즌 전관왕 타이틀'을 차지한 경우는 여대부 사상 처음이라는 게 광주대 설명이다. 국선경 광주대 감독은 "학교 지원에 힘입어 전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돼 기쁘다"면서 "10월부터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명 양채린 KLPGA 첫 우승

미래에셋대우 클래식, 연장점전 끝 정희원 눌러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년 차 무명 양채린(21·교촌F&B)이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양채린은 25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강촌 골프장(파72·6527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미래에셋대우 클래식 최종일 정희원(25·파인테크닉스)과 연장점전 끝에 정상에 올랐다.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친 양채린은 3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정희원과 공동 1위로 대회를 마쳐 연장전을 벌였다. 18번홀(파3)에서 치러진 2차례 연장전을 모두 파로 비긴 뒤 3차 연장전에서 양채린은 6m 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해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KLPGA 투어 상금랭킹 56위로 겨우 시드를 지켰던 양채린은 올해도 10차례나 컷 탈락했고 최고 성적이 20위에 불과해 내년 시드 유지가 힘든 상금랭킹 78위(4578만원)였다. 하지만 우승 상금 1억2000만 원을 받은 양채린은 상금 순위도 30위 이내로 상승했고 2018년까지 시드권 확보라는 값진 선물을 챙기며 깜짝 스타로 등장했다.

3언더파 69타를 친 세계랭킹 6위 김세영(23·미래에셋)은 1타가 모자라 연장전에 나가지 못했다. 공동 1위에서 타이틀 방어에 나선 KLPGA 투어 1인자 박성현(23·넵스)은 난조 끝에 6오버파 78타를 쳐 공동17위(3언더파 213타)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25일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강촌 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미래에셋대우 클래식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양채린이 우승확정 순간 캐디인 아버지 양승환 씨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호 2루타 등 3안타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루타 두방을 포함해 시즌 5번째 3안타 경기를 펼쳤다.

강정호는 25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 3안타 1사구로 경기를 마쳤다.

최근 6경기에서 20타수 1안타로 부진했던 강정호의 방망이가 다시 불을 뿜었다. 강정호는 이날 시즌 5번째이자 9월에만 4번째 3안타 경기를 펼치쳤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활약에도 실책 3개를 남기는 졸

전 끝에 1-6으로 패하며 '가을야구' 희망에서 더욱 멀어졌다.

강정호는 0-3으로 뒤진 1회말 2사 1루에서 워싱턴 우완 선발 조 로스의 2구째 싱커(약 152km)를 밀어쳐 우전 안타로 연결했다. 3회말 2사에서 왼쪽 어깨에 공을 맞고 출루한 강정호는 5회말 1사에서는 워싱턴의 3번째 우완 투수 레이날도 로페스의 6구째 커브를 잡아당겨 좌월 2루타를 쳐냈다. 8회말에는 선두타자로 나서 로페스의 3구째 시속 156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 가운데 담장 상단을 맞는 홈런성 2루타를 터트렸다.

/연합뉴스